韓國의 公教育費 分析

金 明 淑

▷ 目 次 ◁

Ⅰ. 序 論
Ⅱ. 公教育費의 構成
Ⅲ. 單位教育費 및 GNP 對比 公教育費
Ⅳ. 公教育費와 教育의 質
Ⅴ. 結 論

Ⅰ. 序 論

各級學校 教育費는 公共豫算會計 節次를 거치는가 여부에 따라 크게 公教育費와 私教育費로 구분된다. 즉 公教育費는 文教豫算, 地方教育費 特別會計豫算, 私立學校豫算, 各級學校育成會費 및 學徒護國團費豫算을 통해 支出되는 各種 教育費로서 國家, 地方自治團體, 學校法人 外에 學生(또는 學父兄)이 그 負擔主體가 된다. 私教育費는 學父兄이나 學生이 公共豫算會計 節次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출하는 教育費로서 教材費, 學用品費 등이 그 예이다. 이 밖에 교육받는 기간동안 就業할 수 없음으로 해서 발생하는 機會費用도 教育費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이는 넓은 의미의 私教育費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1985年의 경우 各級學校 教育費는 公教育費 4兆 6,599億원, 私教育費 4兆 9,960億원, 機會費用 1兆 3,705億원으로 總 10兆 7,264億원에 달하여 GNP의 14.8%에 이르고 있다[1]. 따라서 이러한 엄청난 規模의 教育費를 어떻게 調達하고 支出하는가 하는 문제는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면에서도 참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本稿는 1967~85年 기간동안의 公教育費 資料를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지난 20年間 教育投資政策의 優先順位가 어떻게 變化하였으며 그것이 各級學校 教育의 質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考察하고자 한다. 여기서 검토대상을 公教育費에 국한한 것은 전술한 私教育費와 機會費用의 중요성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推計上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筆者 : 本院 研究委員

1) 유치원 이상의 정규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함. 孔銀培 外(1985) 참조.

또한 資料의 制約上 決算資料가 아닌 豫算資料를 활용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本稿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먼저 第2章에서는 公敎育費의 學校級別·公私學別·機能別 構成과 學生負擔 公敎育費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고 다음으로 第3章에서는 學生 1人當 公敎育費를 學校級別·公私學別로 比較·檢討하고 그 變化推移를 考察한다. 第4章에서는 公敎育費 資料와 關聯指標를 이용하여 各級學校 敎育의 質的 變化를 推論하고 끝으로 第5章에서는 本硏究의 結論을 제시한다.

Ⅱ. 公敎育費의 構成

1. 學校級別 構成

먼저 公敎育費中 經常的 經費에 국한하여 보면 1967年 初等敎育機關의 比率이 47.3%에 달하고 中等 및 高等敎育機關의 比率이 각각 33.5%와 19.1%이었던 것이 이후 初等敎育機關의 比率이 감소하고 中等 및 高等敎育機關의 比率이 증가하여 1985年 初·中·高等 敎育機關의 比率이 각각 34.1%, 38.5%, 27.4%로 나타나고 있다. 中·高等 學校別로 구분하여 보면 1972年 각각 25.4%와 14.4%로 高等學校에 비하여 中學校의 公敎育費比率이 상당히 높았으나 이후 中學校와 高等學校의 比率이 각각 낮아지고 높아지는 방향으로 變化함에 따라 1985年에는 그 比率이 각각 18.1%와 20.4%로 中學校에 비하여 高等學校의 比率이 높아졌다. 高等敎育機關別로 보면 大學의 경우 公敎育費比率이 1967~77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1972~82年 기간중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專門大學의 公敎育費比率은 1972~82年 기간동안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敎育大學의 公敎育費比率은 대체로 감소 추세하에 있다(表 1 참조).

公敎育費中 資本的 經費는 연도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그 規模의 變化가 심하여 年間 變化를 통해서는 學校級別 比重의 變化推移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1975年 不變價格 基準으로 환산한 각 연도의 資本的 經費를 每 5年計劃期間 單位로 합산하여 보면, 學校級別 比重이 初·中·高等 敎育機關의 순서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資本的 經費의 初·中·高等 敎育機關別 比率의 變化推移를 보면 第2次 5個年計劃期間 중에는 初等敎育機關에 대한 比率(51.4%)이 가장 높았으며, 第3次 5個年計劃期間 중에는 中等敎育機關(42.8%)이, 그리고 第4次 5個年計劃期間과 그 후에는 高等敎育機關(44.9%, 43.2%)이 가장 높은 比率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表 1 참조).

總公敎育費의 學校級別 比率의 變化推移와 관련하여 總學生數의 學校級別 比率의 變化推移를 살펴보면 國民學校의 比率은 1967年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中學校 이상의 모든 學校에서는 그 比率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67~72年 기간에는 中學校 學生數의 比率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1972~77年 기간에는 高等學校 學生數의 比率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1977年 이후에는 大學校 學生數의 比率이 급격히 증가하였다(表 1 참조). 이와 같은 學生數의 學校級別 比率의 變化는 學校級別 學齡人

口와 就學率의 變化를 통하여 설명될 수 있다. 1953年 휴전협정이 체결된 뒤의 出産率增加로 國民學校 學齡人口가 60年代 후반까지 계속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서 60年代 후반 이후 80年代 초반까지 中學校·高等學校·大學校의 適齡人口가 차례로 증가하였다. 또한 就學率은 모든 學校級에서 증가하여 왔으나 國民學校의 경우는 해방 이후 義務敎育制度의 실시로 60年代 후반에 이미 完全就學段階에 이르게 되었고, 中學校와 高等學校의 就學率은 각각 1968年 中學校 無試驗進學制와 1973年 高校平準化 실시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大學의 就學率은 1977~82年 기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의 大學卒業生 就業問題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大學의 就學率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지방 중심으로 專門大學·4年制 大學으로의 昇格承認과 私設大學의 認可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졌고 旣存大學의 定員도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1981年 卒業定員制 導入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表 13 참조).

이상을 종합하건대 經常的 經費와 資本的 經費로 구분하여 學校級別 比率의 變化推移를 보면 1967~85年 기간 동안 公敎育費 支出의 비중이 初·中·高等 敎育機關으로 차례로 옮겨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學生數도 上級敎育機關을 중심으로 급격

〈表 1〉 公敎育費 및 學生數의 學校級別 構成

(단위 : %)

	經常的 經費					資本的 經費	
	1967	1972	1977	1982	1985	1967~71	1972~76
初等	47.3	43.1	38.9	36.3	34.1	51.4	32.3
中等	33.5	39.7	44.2	36.8	38.5	25.0	42.8
中學校	—	25.4	21.2	16.5	18.1	—	—
高等學校	—	14.4	23.0	20.3	20.4	—	—
高等	19.1	17.2	16.9	26.9	27.4	23.6	24.9
專門大學	2.8	2.2	3.3	4.9	4.0	—	—
敎育大學	0.8	0.6	0.5	0.5	0.6	—	—
大學	15.5	14.4	13.2	21.4	22.8	—	—
合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本的 經費		學生數				
	1977~81	1982~85	1967	1972	1977	1982	1985
初等	24.2	29.1	78.0	68.6	58.5	50.0	43.9
中等	30.9	27.7	19.6	28.7	37.6	41.4	44.7
中學校	—	—	13.2	20.0	23.3	23.8	25.2
高等學校	—	—	6.4	8.7	14.3	17.6	19.5
高等	44.9	43.2	2.4	2.7	3.9	8.6	11.4
專門大學	—	—	0.4	0.4	1.0	2.0	2.2
敎育大學	—	—	0.1	0.2	0.0	0.1	0.2
大學	—	—	1.9	2.1	2.9	6.5	9.0
合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 文敎部, 『文敎統計年報』, 各年度.

히 증가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公敎育費의 學校級別 比率의 變化는 學生數의 學校級別 比率의 變化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公敎育費의 學校級別 比率의 變化가 上·下級 學校間 學生 1人當 公敎育費 差異度를 어떠한 방향으로 變化시켰는지에 대해서는 第3章에서 검토될 것이다.

2. 公·私學別 構成

먼저 經常費에 국한하여 보면 私學의 比率이 上級學校로 갈수록 높아지며 專門大의 경우가 가장 높다. 國民學校의 경우 私學의 比率이 1.6~2.1%에 불과하며 1977年 이후 감소추세에 있다. 中學校는 私學의 比率이 1972年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1985年 32.0%로 나타나고 있다. 高等學校에서는 私學의 比率이 1972~82年 기간 동안 53.3%에서 59.8%로 증가하였으며 1985年 55.4%로 약간 감소하였다. 專門大學의 경우 私學의 比率이 1967~72年 기간에는 상당히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85年에 84.6%에 달하고 있다. 大學의 경우 私學의 比率이 대체로 7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表 2 참조).

다음으로 各 5個年計劃期間別로 施設費의 公·私學別 構成을 보면 私學의 比率이 初等敎育機關의 경우 미미하며 中等敎育機關의 경우에도 第2次 5個年計劃期間의 54.9%에서 크게 감소하여 1982~85年 기간 동안에는 27.1%로 나타나고 있다. 高等敎育機關의 경우에는 私學의 比率이 第2次 5個年計劃期間 동안 80.1%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第4次 5個年計劃期間中에는 66.8%까지 감소하였다가 그 이

〈表 2〉 公敎育費 및 學生數의 私立學校 比率 (단위 : %)

	經常的 經費					資本的 經費	
	1967	1972	1977	1982	1985	1967~71	1972~76
初等	1.7	2.1	2.1	1.7	1.6	1.5	1.8
中等	—	51.2	46.4	50.0	43.7	54.9	29.5
中學校	—	49.1	38.3	40.1	32.0	—	—
高等學校	—	53.3	54.5	59.8	55.4	—	—
高等	71.6	68.7	71.8	75.2	78.4	80.1	70.8
專門大學	73.9	65.4	73.9	78.9	84.6	—	—
大學	69.4	71.9	69.7	71.5	72.2	—	—

	資本的 經費		學生數				
	1977~81	1982~85	1967	1972	1977	1982	1985
初等	1.8	0.5	0.9	1.2	1.3	1.3	1.5
中等	32.0	27.1	50.1	49.6	48.5	47.6	46.2
中學校	—	—	49.0	43.2	39.7	35.8	31.8
高等學校	—	—	51.3	56.0	57.3	59.5	60.5
高等	66.8	72.4	75.1	69.0	74.5	79.1	82.1
專門大學	—	—	72.4	64.9	77.3	85.4	90.5
大學	—	—	77.8	73.1	71.8	72.8	73.7

資料 : 文敎部, 『文敎統計年報』, 各年度.

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2 참조).

한편 各級學校 學生數의 公·私學別 構成의 變化를 보면 이상과 같은 私立學校 公教育費 比率의 變化推移는 대체로 私立學校 學生數 比率의 變化推移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2 참조). 公·私學別 學生 1人當 教育費의 變化에 대해서는 第3章에서 論議될 것이다.

3. 機能別 構成

1985年度 各級學校 公教育費를 機能別로 분류하면 〈表 3〉과 같다. 먼저 經常的 經費와 資本的 經費間의 配分을 보면 高等學校의 경우만을 예외로 公學의 경우 資本的 經費가 대체로 높아서 16.7~22.8%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私學의 경우 國民學校와 中學校에서는 資本的 經費가 거의 支出되지 않고 있으나 上級學校로 갈수록 資本的 經費의 比率이 높아져서 國立大學에 비하여 私立大學에서의 資本的 經費의 比率이 높다. 다음으로 經常的 經費의 人件費와 運營費間의 配分을 보면 專門大學을 예외로 할 때 私學에 비하여 公學의 人件費比重이 높으며 公·私學 모두 上級學校로 갈수록 그 比重이 대체로 낮아지고 있다. 즉 公學의 경우 國民學校의 人件費 比重이 가장 높아서 88.0%이며 그리고 中學校, 高等學校, 教育大學, 大學, 專門大學의 순으로 그 比重이 낮아져서 專門大學의 人件費比重이 60.4%로 나타나고 있다. 私學의 경우에도 中學校의 人件費比重이 84.5%로 가장 높으며 그리고 高等學校, 國民學校, 專門大學, 大學의 순으로 그 比重이 낮아져서 大學의 人件費比重은 57.2%에 지나지 않는다.

〈表 4〉를 통해 各級學校 經常的 經費中 人

〈表 3〉 公教育費의 機能別 構成(1985年)

(단위 : %)

		經常的 經費			資本的 經費	公教育費
		小 計	人 件 費	運營費		
國民學校	國公立	83.3	73.3(88.0)	10.0	16.7	100.0
	私 立	100.0	68.8(68.8)	31.2	0.0	100.0
中 學 校	國公立	79.0	67.2(85.0)	11.9	21.0	100.0
	私 立	99.4	83.9(84.5)	15.4	0.6	100.0
高等學校	國公立	94.7	77.3(81.7)	17.3	5.3	100.0
	私 立	94.8	74.6(78.7)	20.2	5.2	100.0
專門大學	國公立	77.2	46.6(60.4)	30.6	22.8	100.0
	私 立	83.6	54.7(65.4)	28.9	16.4	100.0
教育大學	國公立	82.1	56.5(68.9)	25.5	17.9	100.0
大 學	國公立	80.8	51.5(63.7)	29.4	19.2	100.0
	私 立	80.6	46.1(57.2)	34.5	19.4	100.0

註 : 人件費項의 ( ) 안의 數値는 經常的 經費에 대한 人件費의 比率임.
資料 : 文教部, 『文教統計年報』, 各年度.

件費比率의 變化推移를 보면 私立國民學校, 專門大學 및 敎育大學을 제외한 各級學校에서 人件費比重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中學校의 경우 그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專門大學과 敎育大學의 경우에도 기간별로 기복을 보이고 있으나 기간 전체로 보면 人件費比重이 다소 높아졌다. 다만 私立國民學校의 경우 1982年 이후 다소 증가하였으나 1967~82年 기간 동안 人件費比重이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私立國民學校를 제외한 各級學校에서 人件費比率이 증가한 것은 그 이유 및 타당성 여부를 막론하고 學校運營費支出 및 施設投資에 대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4. 私負擔 公敎育費

私負擔 公敎育費란 公敎育費 중에서 學生이 負擔하는 納入金, 즉 入學金 및 受業料, 育(期)成會費와 學徒護國團費를 합한 것이다. 1985年度 各級學校 納入金年額을 제시하면 〈表 5〉와 같다. 新入生 最高額을 기준으로 할 때 中學生과 高等學生의 納入金年額은 각각 20萬 2,800원과 33萬 4,200원으로 각각 40代 都市家計家長의 年平均 家計所得의 3.4%와 5.6%에 해당하며 大學生의 納入金年額은 117萬 5,000원으로 50代 都市家計家長의 年平均 家計所得의 18.4%에 해당한다[2]. 平準化施策下의 中學校와 1級地(가) 高等學校의 경우 公·私學

〈表 4〉 經常的 經費中 人件費의 比率

(단위 : %)

	1967	1972	1977	1982	1985
國民學校	78.9	76.4	82.7	88.2	87.7
國公立	79.0	76.6	83.1	88.6	88.0
私立	72.9	69.4	64.8	64.7	68.8
中學校	—	66.2	79.4	82.0	84.8
國公立	—	66.9	80.4	81.8	85.0
私立	—	65.4	77.8	82.2	84.5
高等學校	—	70.3	70.2	74.5	80.0
國公立	—	74.9	72.2	77.5	81.7
私立	—	66.3	68.5	72.4	78.7
專門大學	51.2	55.7	55.7	47.0	64.6
國公立	57.3	70.6	70.2	45.5	60.4
私立	49.0	47.8	50.6	47.4	65.4
敎育大學	53.3	79.5	65.2	49.7	68.9
大學	51.7	56.8	57.7	59.6	59.0
國公立	61.3	67.0	62.6	63.1	63.7
私立	47.5	52.8	55.6	58.2	57.2

資料 : 文敎部, 『文敎統計年報』, 各年度.

2) 1985年度 40代와 50代 家長의 年平均 家計所得은 각각 600萬 2,640원과 638萬 7,756원으로 集計됨.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1985 참조.

구분없이 納入金年額이 級地別로 균일한 반면 大學과 非平準化地域의 高等學校의 경우 公立學校에 비하여 私立學校의 納入金年額이 상당히 높다. 또한 級地 및 系列에 따라서도 納入金年額의 差等化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公立學校에 비해 私立學校의 경우 그 差等幅이 현저히 작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義務敎育機關인 國民學校를 제외하면 公敎育費의 私負擔依存度가 상당히 높다. 다시 말하여 學生納入金 收入에 비해서 一般租稅收入으로부터의 敎育費支援 및 私立學校法人의 財政寄與의 比率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公敎育費中 施設費는 新規施設費가 대부분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經常的 經費에 대한 納入金收入의 比率을 구해 보면 〈表 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이 발견된다. 첫째, 中·高等學校의 경우 納入金依存度가 1, 2, 3級地順으로 낮아지며 實業系高校가 人文系高校에 비해 納入金依存度가 낮다. 이는 納入金을 級地 및 系列別로 差等 徵收하도록 하는 한편 國庫支援에도 差等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平準化政策이 시행되고 있는 中學校와 1級地(가) 人文系高等學校를 제외하면 公·私學間 納入金依存度의 隔差가 상당히 크다. 이는 公學 위주로 財政支援을 실시하는 대신 私學에 대해서는 納入金을 公學보다 높게 策定하도록 하는 데 따른 결과이다. 세째, 私學의 경우 平準化實施 이후 財政缺陷 補助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2·3級地 中學校를 제외하면 納入金依存度가 극히 높은 상태로서 專門大學이 가장 높고 大學, 高等學校, 中學校의 順으로 낮아진다. 이는 私學에 대한 國家의 財政支援이 미미할 뿐 아니라 私學法人의 財政寄與도 빈약한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네째, 國·公立學校의 경우 高等敎育機關의 納入金依存

〈表 5〉 各級學校 納入金年額[1] (1985)

(단위 : 원)

	1 級 地 (市·邑)		2 級 地 (面)	3 級 地 (島嶼, 僻地)
中 學 校	202,800 (5,700)[2]		130,800 (4,700)	106,200 (4,300)
高等學校	가	나		
公立 人文系	334,200 (6,800)	257,400 (5,700)	226,800 (5,400)	192,000 (5,000)
公立 實業系	334,200 (6,800)	173,400 (5,700)	162,000 (5,400)	144,600 (5,000)
私 立	334,200 (6,800)	321,000 (5,700)	300,000 (5,400)	246,600 (5,000)
綜合大學[3]	人 文 系		自 然 系	
	國 立	私 立	國 立	私 立
	788,000 (80,000)	1,146,000 (90,000)	893,000 (80,000)	1,148,000 (90,000)

註 : 1) 學徒護國團費 제외
2) ( ) 안의 數値는 入學金
3) 大學은 新入生 最高額 基準
資料 : 文敎部, 『文敎統計年報』, 1985.

度가 대체로 낮아서 敎育大學과 專門大學의 納入金依度가 33~35%에 불과하여 3級地 中·高等學校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都市地域 人文系 中·高等學校에 비해서 4年制 大學의 納入金依存度가 현저히 낮다. 이는 곧 國·公立 高等敎育機關에 대한 國家의 財政支援規模가 상당히 큰 것을 말해 주는 것으로 學校級別 投資優先順位의 관점에서뿐 아니라 國·私立 大學在學生間 및 大學進學者와 非進學者間의 衡平의 관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생각된다[3].

이하에서는 中·高等 敎育機關으로 구분하여 納入金依存度의 變化推移를 보도록 한다. 中等敎育機關의 納入金依存度는 資料의 제약

〈表 6〉 經常的 經費에 대한 納入金收入의 比率

(단위 : %)

	1 級 地				2 級 地		3 級 地	
	公 立		私 立		公 立	私 立	公 立	私 立
中學校	88.0		85.2		46.3	49.0	36.5	37.4
	1級地(가)		1級地(나)		2 級 地		3 級 地	
	公 立	私 立	公 立	私 立	公 立	私 立	公 立	私 立
人文高	93.4	99.7	83.1	103.6	65.2	98.2	52.9	90.8
實業高	51.3	93.6	37.5	86.1	35.5	84.3	40.0	—
	國公立	私 立						
專門大學	34.7	106.3						
敎育大學	33.3	—						
大 學	61.0	103.8						

註 : 中·高校는 1984年 資料, 大學校는 1985年 資料.
資料 : 文敎部, 『文敎統計年報』, 各年度.

〈表 7〉 納入金年額 및 1人當 公敎育費(經常的 經費)의 變化指數

		納入金年額(1人當)[1]		1人當 公敎育費	
		公 立	私 立	公 立	私 立
中 學 校	1972~77	2.22		3.24	2.40
	1977~82	2.11(4.71)[2]		2.10(6.79)	2.67(6.43)
	1982~85	1.12(5.29)		1.52(10.29)	1.28(8.21)
高等學校[3]	1972~77	3.11	2.66	3.81	3.81
	1977~82	2.38(7.39)	2.38(6.32)	2.03(7.75)	2.31(8.79)
	1982~85	1.10(8.10)	1.10(6.93)	1.42(10.97)	1.13(9.93)

註 : 1) 新入生 最高額 基準.
2) ( ) 안의 數値는 最初年度(1972年)를 基準으로 한 累積値임.
3) 高等學校는 人文系高等學校를 基準으로 함.
資料 : 文敎部, 『文敎統計年報』, 各年度.

3) 各級學校 納入金收入의 一定比率이 장학금으로 다시 學生에게 되돌아가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納入金依存度는 〈表 6〉에 제시된 數値보다 다소 낮다고 할 수 있으며 大學의 경우 그 差異가 가장 클 것임.

상 직접 산출하기가 어려우므로 〈表 7〉에서와 같이 納入金引上率과 1人當 公教育費(經常費에 국한) 增加率을 비교하여 納入金依存度의 變化推移를 간접적으로 類推하고자 한다. 中學校의 경우 1972~85年 기간 동안 公·私學 모두 1人當 公教育費 增加率이 納入金引上率을 상회하여 納入金依存度가 낮아지고 있으며

〈表 8〉 公教育費(經常的 經費)의 納入金依存度
(高等教育機關)

(단위 : %)

	國立大學	私立大學	私立 專門大學
1967	27.5	90.6	96.4
1972	32.7	90.1	88.8
1977	33.6	92.2	99.4
1982	60.5	107.8	108.4
1985	61.0	101.0	104.1

資料 : 文教部, 『文教統計年報』, 各年度.

그러한 경향은 公學에서 더 강함을 알 수 있다. 高等學校에서도 1972~85年 기간 전체로 보면 1人當 公教育費 增加率이 納入金引上率을 앞지르고 있어서 納入金依存度가 낮아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별로 구분하여 보면 1972~77年 기간과 1982~85年 기간 동안에는 納入金依存度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1977~82年 기간 동안에는 1人當 公教育費 增加率이 納入金引上率에 못미쳐 納入金依存度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8〉을 통하여 高等教育機關의 納入金依存度의 變化推移를 살펴보면 國立大學의 경우 納入金依存度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특히 1977~82年 기간중 그 증가폭이 커서 1977年

〈表 9〉 納入金年額의 變化指數

		納入金年額[1]		全國 消費者物價指數	教育費價格指數		年平均 家計所得指數[3]
		國·公立	私 立		國·公立	私 立	
中學校	1967~72	3.12	2.43	1.84	— —	— —	1.86
	1972~77	2.22(6.95)[2]	2.22(5.40)	2.04(3.75)	3.79	3.74	2.68(4.98)
	1977~82	2.12(14.71)	2.12(11.45)	2.27(8.49)	2.57(9.73)	2.61(9.75)	2.62(13.02)
	1982~85	1.12(16.52)	1.12(12.86)	1.08(9.20)	1.26(12.27)	1.25(12.23)	1.41(18.38)
高等學校	1967~72	2.78	2.77	1.84	— —	— —	1.86
	1972~77	3.11(8.65)	2.66(7.36)	2.04(3.75)	3.65	3.56	2.68(4.98)
	1977~82	2.38(20.54)	2.38(17.49)	2.27(8.49)	2.64(9.62)	2.59(9.22)	2.62(13.02)
	1982~85	1.10(22.52)	1.10(19.18)	1.08(9.20)	1.25(12.05)	1.28(11.76)	1.41(18.38)
大學校	1967~72	3.06	2.88	1.84	2.09	1.90	1.73
	1972~77	4.60(14.07)	2.80(8.05)	2.04(3.75)	3.45(7.21)	3.29(6.25)	3.21(5.30)
	1977~82	3.30(46.36)	2.35(18.96)	2.27(8.49)	2.53(18.21)	2.55(15.94)	2.87(15.85)
	1982~85	1.06(49.32)	1.09(20.59)	1.08(9.20)	1.21(22.03)	1.19(18.90)	1.29(16.08)

註 : 1) 中·高等學校의 경우 新入生 最高額 基準, 大學校의 경우 人文系 新入生 最高額 基準, 大學 納入金年額은 學徒護國團費를 除外하고 計算한 것임.
2) ( ) 안의 數値는 最初年度를 基準으로 한 累積値임(國民學校와 大學校는 1967年, 中·高等學校는 1972年)
3) 中·高等學校의 年平均 家計所得指數는 40代 家長의 年平均 所得을 使用하고, 大學의 경우는 50代 家長의 年平均所得을 使用하였음.

資料 : 經濟企劃院, 『韓國의 經濟指標』, 1986; 『都市家計年報』, 1985.
文教部, 『文教統計年報』, 各年度.
韓國銀行, 『國民所得計定』, 各年度.

33.6%에서 1982年 60.5%로 급증하였다. 이는 國·私立大學의 納入金 隔差를 축소한다는 방침하에 1981~82年 國立大學 納入金이 대폭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私立大學과 私立專門大學의 경우 納入金依存度가 1972年 이후 계속 증가해서 1982年 각각 107.8%와 108.4%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1982~85年 기간중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끝으로 〈表 9〉를 통하여 各級學校 納入金의 變化를 消費者物價指數, 各級學校「教育費價格指數」, 年平均家計所得의 增加率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 「教育費價格指數」란 各級教育機關이 구매하는 財貨와 서비스의 價格指數를 말하는 것으로서 年間教育費를 크게 人件費와 運營費로 구분한다면「教育費價格指數」는 다음과 같이「人件費價格指數」와「運營費價格指數」의 加重平均値로서 표시된다[4].

$$\text{教育費價格指數} = (\text{人件費價格指數} \times \frac{\text{人件費}}{\text{經常費}}) + (\text{運營費價格指數} \times \frac{\text{運營費}}{\text{經常費}})$$

〈表 9〉에서의 教育費價格指數는 위 式의 人件費價格指數로 一般政府消費支出中 '給料와 勞賃' 支出內의「教育公務員給與指數」를, 그리고 運營費價格指數로 一般政府消費支出中 '財貨와 其他用役' 支出內의 '教育費支出「디플레이터」'를 사용하였다. 教育費價格指數가 學校級과 公·私學別로 差異가 나는 것은 人件費와 運營費比重의 差異에 기인한다.

納入金의 變化를 消費者物價指數의 變化와 비교하여 보면 中學校의 경우 1972~85年 기간 전체로 볼 때 消費者物價指數에 비해 納入金의 增加率이 낮았으나 기간별로는 差異가 나서 1977~82年 사이에는 消費者物價指數에 비해 納入金의 增加率이 낮았고 1972~77年과 1982~85年 기간 동안에는 반대로 消費者物價指數에 비해 納入金의 上昇率이 높았다. 高等學校와 大學의 경우에는 1982~85年 國立大學의 경우를 제외하면 消費者物價指數에 비해 納入金의 上昇率이 높았으며 다만 그 差異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納入金의 變化를 教育費價格指數의 變化와 비교하여 보면 中·高等學校의 경우 전기간에 걸쳐 教育費價格指數에 비해 納入金의 上昇率이 낮았으나 大學에서는 國·私立에 따라, 그리고 기간별로 差異가 있다. 즉 國立大學의 경우 1967~82年 기간 동안 教育費價格指數에 비해 納入金의 上昇率이 현저히 높았으며 이러한 추세는 1982年 이후 반전되고 있다. 私立大學의 경우 1967~72年 기간에 한해 教育費價格指數보다 納入金의 增加率이 높았으며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教育費價格指數보다 納入金의 上昇率이 낮았다.

中·高等學校와 大學의 納入金 變化를 각각 40代와 50代 家長의 年平均 家計所得의 變化와 비교하여 보면 學校級別, 公·私學別로 差異가 있으나 1967年 이후 일정기간까지는 納入金上昇率이 家計所得 增加率을 앞지르다가 그 이후부터는 納入金上昇率이 家計所得 增加率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中學校와 私立高等學校 및 大學의 경우 1972年까지, 國·公立高等學校는 1977年까지, 그리고 國·公立大學은 1982年까지 納入金上昇率이 家計所得 增加率보다 높았으며 그 이후부터는 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4) 教育費價格指數에 대한 자세한 論議는 D.K. Halstead (1983) 참조.

Ⅲ. 單位敎育費 및 GNP 對比 公敎育費

1. 學生 1人當 公敎育費

먼저 〈表 10〉을 통하여 經常價格基準 學生 1人當 公敎育費(이하에서 '單位敎育費'라고 함)를 學校級別, 公·私學別로 비교하여 보도록 한다. 여기서도 역시 施設費는 제외하고 經常的 經費에 국한하여 검토한다.

學校級別 單位敎育費와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67~85年 기간 동안 上·下級 學校間 單位敎育費의 差異가 크게 감소하였다. 예컨대 國·公立國民學校의 單位敎育費를 基準 1.00으로 할 때 國立大學校의 單價敎育費가 1967年 19.03에서 1985年 3.44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는 주로 上·下級 學校間 單位人件費의 差異가 크게 감소된 데 따른 결과이다. 둘째, 中學校의 單位敎育費가 상당히 낮아서 1982年 이후 國民學校의 單位敎育費보다도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中·高等學校間 單位敎育費의 差異도 상당히 크다. 세째, 1977年 이후 敎育大學의 單位敎育費가 가장 크며 國立專門大學의 單位敎育費가 1982年 이후 4年制 大學의 單位敎育費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高等敎育機關間의 單位敎育費의 差異는 그 質的 差異보다는 그 規模의 差異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公·私學別 單位敎育費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견된다. 첫째, 高等學校 이상의 경우에는 公學에 비하여 私學의 單位敎育費가 현저히 낮은바, 이는 私學 在學生의 경우 公學 在學生에 비하여 納入金을 더 내고도 質的으로 떨어지는 敎育을 받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公·私學 敎育의 성격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公·私學 在學生間의 衡平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公·私學間 單位敎育費의 差異는 單位人件費의 差異에 기인하는 것으로 單位運營費는 私學이 公學에 비해 오히려 높다. 세째, 公·私立國民學校間 單位敎育費의 隔差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즉 國·公立國民學校의 單位敎育費를 基準 1.00으로 할 때 私立國民學校의 單位敎育費가 1982年 1.82에 달하던 것이 1985年 1.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네째, 平準化政策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中學校의 경우 1982年 이후 國·公立學校에 비하여 私立學校의 單位敎育費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單位人件費面에서도 私學이 公學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中學校의 經常費 不足分에 대해서만 國庫支援을 받고 있는 中·高 併設私立學校에 있어서 高等學校의 高號俸 敎師가 中學校로 전출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經常價格基準 單位敎育費를 前述한 敎育費價格指數를 이용하여 不變價格基準 單位敎育費로 환산하여 그 變化推移를 살펴보면 〈表 11〉와 같다. 國民學校는 單位敎育費가 公學의 경우 1967~85年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하여 1967年을 基準 1.00으로 할 때 1985年 2.44까지 증가하였으며 私學의 경우에도 1977年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中學校의 경우 單位敎育費가 1972~77年 사이 크게 감소한 이후 회복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1972年을 基準 1.00으로 할 때 1985年 0.84(公學)와 0.67(私學)에 머물고 있다. 高等學校에 있어서는 公·私學 모두 單位敎育費가 1972~77年 기간 동안에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여 1972年을 基準 1.00으로 할 때 1985年 0.91(公學)과 0.84(私學)를 기록하고 있다. 敎育大學의 경우 單位敎育費가 1967~77年 기간 동안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國·公立專門大學은 單位敎育費가 연도별로 기복을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私立專門大學은 1972年

〈表 10〉 各級學校 單位敎育費(經常價格 基準)

(단위 : 원)

		1967				1972				1977	
		人件費	運營費	經常費	差異度[1]	人件費	運營費	經常費	差異度	人件費	運營費
國民學校	國公立	2,848	756	3,604	1.00	10,004	3,064	13,068	1.00	45,295	9,243
	私 立	4,778	1,776	6,554	1.82	16,550	7,287	23,837	1.82	60,701	32,970
中學校	國公立	—	—	—	—	15,957	7,900	23,857	1.83	62,079	15,131
	私 立	—	—	—	—	19,793	10,470	30,263	2.32	56,616	16,129
高等學校	國公立	—	—	—	—	27,763	9,315	37,078	2.84	102,005	39,200
	私 立	—	—	—	—	21,984	11,153	33,137	2.54	86,598	39,737
專門大學	國公立	22,033	16,402	38,435	10.66	72,618	30,279	102,897	7.87	226,996	96,572
	私 立	20,286	21,129	41,415	11.49	50,366	54,956	105,322	8.06	136,455	133,053
敎育大學	國公立	20,014	17,510	37,524	10.41	70,507	134,347	204,854	6.79	676,425	361,774
大 學	國公立	42,002	26,565	68,567	19.03	103,090	50,718	153,808	11.77	256,610	153,330
	私 立	21,045	23,229	44,274	12.28	76,467	68,332	144,799	11.08	206,233	164,944

		1977		1982				1985			
		經常費	差異度	人件費	運營費	經常費	差異度	人件費	運營費	經常費	差異度
國民學校	國公立	54,538	1.00	161,151	20,705	181,856	1.00	233,832	31,790	265,622	1.00
	私 立	93,671	1.72	149,066	81,329	230,395	1.27	195,720	88,615	284,335	1.07
中學校	國公立	77,210	1.42	132,635	29,437	162,072	0.89	208,699	36,894	245,593	0.92
	私 立	72,745	1.33	159,936	34,627	194,563	1.07	210,027	38,571	248,598	0.94
高等學校	國公立	141,205	2.59	222,722	64,509	287,231	1.58	332,244	74,543	406,787	1.53
	私 立	126,335	2.32	210,948	80,279	291,227	1.60	258,862	70,190	329,052	1.24
專門大學	國公立	323,568	5.93	405,915	486,914	892,829	4.91	608,416	399,013	1,007,429	3.79
	私 立	269,508	4.94	269,560	298,940	568,500	3.13	378,579	200,273	578,852	2.18
敎育大學	國公立	1,038,199	19.04	665,712	674,163	1,339,875	7.37	874,422	395,220	1,269,642	4.78
大 學	國公立	409,940	7.52	543,044	317,084	860,128	4.73	581,634	331,004	913,538	3.44
	私 立	371,177	6.81	469,953	337,740	807,693	4.44	482,754	361,809	844,563	3.18

註 : 1) 差異度란 國·公立 國民學校 經常費를 1.00으로 했을 때의 各級學校 經常費의 相對的 크기를 말함.
資料 : 文敎部, 『文敎統計年報』, 各年度.

이후 單位敎育費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大學의 경우 單位敎育費가 1967~72年 기간 동안에는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1967年을 基準 1.00으로 할 때 1985年 0.60(公學)과 1.01(私學)을 기록하고 있다.

不變價格基準 單位敎育費는 經常價格基準 單位敎育費에서 物價上昇要因을 제거한 것으로 곧 學生 1人當 實質投入을 의미하기 때문에 敎育의 質을 나타내는 代表的인 指標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前述한 不變價格基準 單位敎育費의 變化推移를 가지고 敎育의 質的 變化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상의 單位敎育費에는 私敎育費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韓國敎育開發院이 推計한 바에 의하면 私敎育費 總額의 公敎育費 總額에 대한 比率은 1977年 47.6%, 1982年 61.0%, 1985年 100.8%로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5]. 따라서 私敎育費의 變化가 單位敎育費와 더 나아가서 敎育의 質的 水準의 變化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고 하겠다. 둘째, 本稿에서는 資料의 制約上 公·私學과 學校級을 구분하지 않고 人件費價格指數와 運營費價格指數로 公·私立 全體에 대한 「敎員給與指數」와 「敎育費支出 디플레이터」를 각각 사용하였다. 다시 말하여 이상의 不變價格基準 單位敎育費는 公·私學別, 學校級別, 系列別로 人件費 및 運營費價格指數의 差異가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산출되었다는 것이다. 세째, 經常價格基準 單位敎育費를 敎育費價格指數와 不變價格基準 單位敎育費로 구분함에 있어 敎育投入要素의 生産變化가 없다는 가정이 전제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敎員의 資質이 變化했거나 새로운 敎育方法이 導入되었다면 이상에서 제시한 不變價格基準 單位敎育費로는 實質投入의 變化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6]. 끝으로 서로 성질이 다른 敎育經費의 總合인 單位敎育費의 變化推移만을 가지고는 敎育의 質的 變化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敎育의 質的

〈表 11〉 各級學校 單位敎育費의 變化指數(1975년 不變價格基準)

		1967~72	1972~77	1977~82	1982~85
國民學校	國公立	1.51	1.08(1.63)	1.17(1.91)	1.27(2.44)
	私立	1.59	1.12(1.79)	0.98(1.74)	0.99(1.73)
中學校	國公立	—	0.85(0.85)	0.82(0.70)	1.20(0.84)
	私立	—	0.64(0.64)	1.03(0.66)	1.02(0.67)
高等學校	國公立	—	1.04(1.04)	0.77(0.81)	1.13(0.91)
	私立	—	1.07(1.07)	0.89(0.95)	0.89(0.84)
專門大學	國公立	1.32	0.88(1.16)	1.27(1.47)	0.86(1.26)
	私立	1.32	0.80(1.06)	0.85(0.90)	0.76(0.69)
敎育大學	國公立	1.21	3.32(4.02)	0.56(2.25)	0.70(1.56)
大學	國公立	1.07	0.77(0.83)	0.83(0.69)	0.88(0.60)
	私立	1.72	0.78(1.34)	0.85(1.14)	0.88(1.01)

註 : ( ) 안의 數値는 最初年度를 基準으로 한 累積値임.
資料 : 文敎部, 『文敎統計年報』, 各年度.

5) 孔銀培 外(1985) 참조.
6) Ohagan and Kelly (1984), pp. 90~91 참조.

變化를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單位敎育費를 費用의 성질별로 세분하여 그 각각의 變化推移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第4章 참조).

2. GNP 對比 公敎育費

GNP 對比 總公敎育費比率은 1967年 4.0%에서 1985년 6.2%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간별로 보면 GNP 對比 總公敎育費比率은 8.3 緊急措置가 발표된 1972年 이후 몇년 동안 감소한 바 있으며 1982年 7.2%를 最高値로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表 12 참조).

〈表 12〉 總公敎育費 및 學生數

	公敎育費[1] A (백만원)	GNP[2] B (백만원)	A/B (%)
1967	51,264	1,281,230	4.0
1968	73,295	1,652,930	4.4
1969	91,574	2,155,270	4.2
1970	144,242	2,684,020	5.4
1971	171,679	3,294,830	5.2
1972	221,307	4,028,880	5.5
1973	234,343	5,238,300	4.5
1974	272,708	7,332,500	3.7
1975	396,679	9,792,850	4.1
1976	689,592	13,272,590	5.2
1977	860,393	17,021,370	5.1
1978	1,187,134	22,917,600	5.2
1979	1,513,026	29,072,080	5.2
1980	1,971,202	34,321,550	5.7
1981	2,699,871	42,397,120	6.4
1982	3,471,118	48,088,300	7.2
1983	3,979,969	58,985,800	6.7
1984	4,156,430	66,408,200	6.3
1985	4,454,787	72,317,000	6.2

註 : 1) 國民學校 以上 正規敎育機關을 대상으로 함.
2) 1983年 以後의 GNP는 新SNA方式으로 算出한 것임.

資料 : 經濟企劃院, 『韓國의 經濟指標』, 1986.
文敎部, 『文敎統計年報』, 各年度.

이하에서는 GNP 對比 各級學校 公敎育費比率의 變化推移와 그 變化要因에 대해서 검토한다.

가. 經常的 經費

各級學校 公敎育費를 GNP에 對比하여 보면 〈表 1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中學校를 예외로 모든 學校에서 그 比率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各級學校 學生數도 같은 기간 동안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GNP 對比 公敎育費의 比率을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frac{\text{公敎育費}}{\text{GNP}} = \frac{\text{學齡人口}}{\text{人口}} \times \frac{\text{學生數}}{\text{學齡人口}} \times \frac{\text{單位敎育費}}{\text{1人當GNP}}$$

(學齡人口比率)(就學率)(敎育費比率)

學校級別로 위 항등식의 각 항목별 變化推移를 보면 다음과 같다.

國民學校의 경우 GNP 對比 公敎育費比率이 기간별로 기복을 보이고 있으나 1967年을 基準 1.00으로 할 때 1985年 1.17로 나타나고 있다. 學齡人口比率의 감소로 인하여 人口對比 學生數比率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敎育費比率은 公學의 경우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私學의 경우 1977年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中學校의 경우 GNP 對比 公敎育費比率이 1972年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 學齡人口比率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就學率이 크게 증가하여 人口對比 學生數比率이 증가하고 있으며, 敎育費比率은 公學의 경우 1972~82年 기간 동안 계속 감소하다가 1982年 이후 약간 회복되었고 私學의 경우 기간별로 기복을 보이나 전체적으로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高等學校에서는 GNP對比 公敎育費比率이 1972年 이후 증가하다가 1982年 이후 감소하였다. 學齡人口比率은 1977年 이후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에 就學率이 크게 증가하여 1972~85年 기간동안 人口對比 學生數比率이 2.41배 증가하였으며 敎育費比率은 公·私學 모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大學의 경우 GNP對比 公敎育費比率이 기간별로 약간의 기복을 보이고 있으나 1967~85年 기간 전체를 볼 때 2.39배 증가하였다. 學齡人口比率과 就學率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1977~82年 기간 동안 就學率이 2.24배 증가하여 人口對比 學生數比率이 1967~85年 전기간 동안 5.69배 증가하였다. 敎育費比率은 1967~72年 기간 동안 私立大學에서 약간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1967~85年 전기간에 걸쳐 계속 감소하여 1967年을 基準 1.00으로 할 때 1985年 公·私學 각각 0.32와 0.46을 기록하였다.

이상을 종합하면 1967~85年 기간 동안 中學校를 제외한 各級學校에서 GNP對比 公敎育費比率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學齡人口比率 및 就學率의 급격한 증가로 人口對比 學生數比率이 더욱 빨리 증가함에 따라 國民學校를 제외한 各級學校에서 敎育費比率이 감소하였으며 大學에 있어 그 감소폭이 가장 크

〈表 13〉 GNP對比 公敎育費(經常的 經費)의 變化指數

		經常費/GNP	學齡人口比率	就學率	人口對比學生數比率	敎育費 比率(經常價格)		敎育費價格指數/GNP「디플레이터」		敎育費 比率(不變價格)	
						國公立	私 立	國公立	私 立	國公立	私 立
國民學校	1967~72	1.24	0.91	1.06	0.97	1.28	1.29	1.20	1.15	1.06	1.12
	1972~77	0.94 (1.17)	0.92 (0.83)	0.96 (1.02)	0.88 (0.85)	1.07 (1.38)	1.01 (1.30)	1.54 (1.86)	1.40 (1.60)	0.70 (0.74)	0.72 (0.81)
	1977~82	1.16 (1.36)	0.89 (0.74)	1.03 (1.05)	0.92 (0.78)	1.27 (1.75)	0.94 (1.22)	1.25 (2.32)	1.11 (1.78)	1.02 (0.76)	0.85 (0.69)
	1982~85	0.86 (1.17)	0.92 (0.68)	0.93 (0.98)	0.85 (0.66)	1.01 (1.78)	0.86 (1.05)	1.00 (2.33)	1.09 (1.93)	1.01 (0.77)	0.79 (0.54)
中學校	1972~77	0.87	0.89	1.34	1.20	0.83	0.62	1.51	1.49	0.55	0.41
	1977~82	0.97 (0.84)	0.93 (0.83)	1.18 (1.59)	1.10 (1.32)	0.80 (0.67)	1.02 (0.63)	1.13 (1.71)	1.15 (1.72)	0.71 (0.39)	0.89 (0.37)
	1982~85	1.01 (0.85)	0.96 (0.80)	1.07 (1.69)	1.02 (1.35)	1.05 (0.70)	0.89 (0.56)	1.10 (1.88)	1.09 (1.88)	0.96 (0.37)	0.81 (0.30)
高等學校	1972~77	1.67	1.08	1.58	1.70	0.98	0.98	1.46	1.42	0.67	0.69
	1677~82	1.10 (1.83)	0.85 (0.92)	1.54 (2.43)	1.32 (2.24)	0.78 (0.76)	0.88 (0.86)	1.16 (1.69)	1.14 (1.62)	0.67 (0.45)	0.77 (0.53)
	1982~85	0.93 (1.70)	0.88 (0.82)	1.21 (2.95)	1.07 (2.41)	0.98 (0.75)	0.78 (0.68)	1.09 (1.85)	1.11 (1.80)	0.90 (0.41)	0.70 (0.38)
大學校	1967~72	1.26	1.04	1.15	1.20	0.79	1.16	1.05	0.95	0.76	1.21
	1972~77	0.96 (1.21)	1.20 (1.25)	1.19 (1.38)	1.43 (1.72)	0.69 (0.54)	0.66 (0.76)	1.38 (1.44)	1.31 (1.25)	0.50 (0.38)	0.50 (0.61)
	1977~82	2.03 (2.45)	1.10 (1.38)	2.24 (3.08)	2.47 (4.25)	0.80 (0.44)	0.83 (0.63)	1.11 (1.60)	1.12 (1.40)	0.72 (0.27)	0.74 (0.45)
	1982~85	0.98 (2.39)	1.14 (1.57)	1.18 (3.63)	1.34 (5.69)	0.74 (0.32)	0.73 (0.46)	1.06 (1.69)	1.03 (1.45)	0.70 (0.19)	0.70 (0.32)

註：( ) 안의 數値는 最初年度를 基準으로 한 累積値임.

資料：經濟企劃院, 『韓國의 經濟指標』, 1986.
文敎部, 『文敎統計年報』, 各年度.

다. 이러한 敎育費比率의 감소추세는 1人當 公敎育費의 증가속도가 1人當 GNP의 증가속도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급속한 經濟成長過程에서 敎育部門에 대한 投資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敎育部門에서 구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상승은 GNP「디플레이터」의 증가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實質投入을 基準으로 하면 敎育費比率의 감소는 經常價格基準 敎育費比率의 감소보다 더 커지게 된다. 經常價格基準 敎育費比率의 變化를 GNP「디플레이터」에 대한 敎育費價格指數比率의 상대적 變化와 不變價格基準(實質投入基準) 敎育費比率의 變化로 구분하여 보면 〈表 13〉의 오른쪽에 제시된 바와 같다. GNP「디플레이터」에 대한 敎育費價格指數의 比率은 1967~72年 기간 동안의 私立大學의 경우만을 예외로 하면 모든 學校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1972~77年 기간 동안 그 증가폭이 크다. 이에 따라서 中學校 이상의 모든 學校에서 不變價格基準 敎育費比率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國民學校에서도 기간별로 기복은 있으나 1967年을 基準 1.00으로 할 때 1985年 0.77(公立)과 0.54(私立)로 감소하였다.

敎育費價格指數가 GNP「디플레이터」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것은 敎育의 技術的 特性(非對替性)과 敎育運營의 非效率性의 두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즉 敎育은 선생과 학생의 현장에서의 만남을 기본적인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에 敎員을 敎育機資材 등 다른 投入要素로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經濟成長과 더불어 賃金 및 俸給水準이 높아짐에 따라 敎育서비스의 生産費用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敎育部門은 競爭의 缺如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생산성증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單位費用이 증가한다는 것이다[7].

나. 資本的 經費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1975年 不變價格을 基準으로 總資本的 經費를 산출하여 GNP 水準과 비교하면 〈表 14〉와 같다. 總資本的 經費의 GNP에 대한 比率은 第2次 5個年計劃期間中 0.99%를 기록하였으나 第 3, 4次計劃期間中에는 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1982~1985年 期間中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初·中·高等 敎育機關別로 구분하여 보면 GNP 對比 資本的 經費의 比率이 初等敎育機關의 경우 第2次 5個年計劃期間中 가장 높았다가 그 이후 상당히 떨어졌으며 中等敎育機關에서는 그 比率이 第 2, 3, 4次 5個年計劃期間 동안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1982年 이후 높아졌다. 高等敎育機關의 경우 GNP 對比 資本的 經費의 比率이 2次에 비하여 3次 5個年計劃期間中에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1982~85年 기간 동안에는 初·中·高等 敎育機關 모두에서 GNP 對比 資本的 經費의 比率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表 14〉 GNP 對比 公敎育費(資本的 經費)

(단위 : %)

	1967~71	1972~76	1977~81	1982~85
初等敎育	0.51	0.22	0.20	0.36
中等敎育	0.25	0.29	0.27	0.35
高等敎育	0.23	0.17	0.36	0.54
計	0.99	0.68	0.83	1.25

資料 : 文敎部, 『文敎統計年報』, 各年度.

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Bradford, Malt, and Oates (1969)와 OECD(1973), pp. 177~185 참조.

이는 이 기간 동안 敎育稅가 徵收된 데 힘입은 바 큰 것으로 풀이된다.

Ⅳ. 公敎育費와 敎育의 質

敎育의 質은 직접적으로 敎育效果를 가지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敎育을 통해서 學生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變化하였는가에 따라서 敎育의 質的 水準을 판가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敎育效果는 敎育目標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또한 합의된 敎育目標下에서도 敎育效果를 數量化하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敎育目標라고 할 수 있는 學業成就度만을 가지고 보더라도 敎育效果 내지 敎育의 質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資料는 거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敎育의 質을 일반적으로 敎育에 대한 投入要素의 質 및 量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敎育의 質을 나타내는 指標로서 單位敎育費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1967~85年 기간 동안 國民學校를 제외한 各級學校에서 不變價格基準 單位敎育費가 하락하였으며 그것을 1人當 GNP에 對比한 敎育費比率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는 이상의 검토 결과는 동기간 동안 敎育의 質的 水準이 떨어졌으며 급속한 經濟成長過程에서 敎育部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一般化된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本章에서는 이러한 單位敎育費의 變化推移에만 의존하지 않고 公敎育費 資料와 關聯指標를 보다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지난 20년간 敎育의 質的 變化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는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이해를 구하려고 한다.

1. 敎員給與水準

市場經濟에서 生産要素의 價格은 需要와 供給에 의해서 결정되며 따라서 限界生産物價値(value of marginal product)와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敎員의 給與는 市場의 需要와 供給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公務員處遇의 次元에서 政策的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敎員의 限界生産性을 반영하지 않음은 물론 政府의 財政事情과 敎員의 交涉力 등에 좌우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敎員의 給與가 敎員의 生産性이나 市場條件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敎員의 給與水準은 敎員志望生의 能力水準에 영향을 줌으로써 장기적으로 敎員의 資質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敎員의 資質變化와 관련하여 敎員給與水準의 變化를 1人當 GNP의 變化와 비교하여 보면 〈表 15〉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1967~85年 기간 전체로 볼 때 敎員給與水準의 增加率이 대체로 1人當 GNP의 增加率과 비슷한 水準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

〈表 15〉 1人當 GNP와 敎員給與指數의 變化

	1人當 GNP	敎員給與指數
1967~72	2.92	2.92
1972~77	4.01(11.71)	4.25(12.41)
1977~82	2.61(30.51)	2.57(31.93)
1982~85	1.36(41.62)	1.26(41.07)

註：( ) 안의 數値는 最初年度(1967年)를 基準으로 한 累積値임.
資料：經濟企劃院, 『韓國의 經濟指標』, 1986.
韓國銀行, 『國民所得計定』, 各年度.

간을 보다 세분하여 보면 1967~77年 기간 중에는 教員給與水準의 상승이 1人當 GNP의 증가를 다소 앞지르고 있으며 1977~85年 기간중에는 반대로 教員給與水準의 상승이 1人當 GNP의 증가에 약간 못미치고 있다.

教員供給函數에는 給與水準外에 各種 附加給與(fringe benefits), 勤務時間 및 條件, 昇進機會 및 停年, 教育行政要因 등 여러 가지 獨立變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教員給與水準의 變化만 가지고 教員資質을 설명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또한 〈表 15〉에서와 같이 國·公立學校 전체에 대한 教員給與指數 하나만을 가지고 教員給與水準의 變化를 1人當 GNP의 變化와 비교하는 것은 學校級別, 公·私學別, 勤續年數別 教員給與指數의 差異가 클수록 그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教員의 資質變化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表 15〉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教員에 대한 經濟的 處遇가 크게 악화되어 教員의 資質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2. 單位人件費

經常價格基準 單位人件費는 教員給與水準과 教員/學生 比率로 구분될 수 있으며 따라서 不變價格基準 單位人件費는 바로 教員/學生 比率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表 16〉을 통해서 不變價格基準 單位人件費의 變化推移를 살펴보면 國民學校와 教育大學을 제외한 各級學校의 單位人件費가 1982~85年 기간 동안 다소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1967~85年 전기간을 통해 상당히 감소하였으며 그러한 감소경향은 大學과 專門大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8]. 이는 公教育費의 機能別 構成에서 人件費 比率이 계속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教員/學生 比率은 계속 낮아졌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으로서 이를

〈表 16〉 單位人件費의 變化指數(1975年 不變價格基準)

		1967~72	1972~77	1977~82	1982~85
國民學校	國公立	1.20	1.07(1.28)	1.38(1.77)	1.15(2.04)
	私立	1.19	0.86(1.02)	0.95(0.98)	1.04(1.02)
中學校	國公立	—	0.92(0.92)	0.83(0.76)	1.25(0.95)
	私立	—	0.67(0.67)	1.10(0.74)	1.04(0.77)
高等學校	國公立	—	0.87(0.87)	0.85(0.73)	1.19(0.87)
	私立	—	0.93(0.93)	0.94(0.88)	0.98(0.86)
專門大學	國公立	1.13	0.74(0.83)	0.70(0.58)	1.19(0.69)
	私立	0.85	0.64(0.54)	0.77(0.42)	1.12(0.47)
教育大學	國公立	1.21	2.26(2.72)	0.38(1.04)	1.04(1.09)
大學	國公立	0.84	0.59(0.49)	0.82(0.41)	0.85(0.35)
	私立	1.24	0.64(0.79)	0.89(0.70)	0.82(0.57)

註 : ( ) 안의 數値는 最初年度를 基準으로 한 累積値임.
資料 : 文教部, 『文教統計年報』, 各年度.

8) 各級學校別 教員數와 學生數를 가지고 직접 산출한 教員/學生 比率의 變化推移도 이러한 不變價格基準 單位人件費의 變化推移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음. 韓國教育開發院(1985) 참조.

통해서 전술한 人件費 比率의 증가 이유가 敎員給與水準의 증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單位人件費의 變化는 敎員授業負擔의 變化와 學級規模의 變化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中·高等學校의 경우 둘다 1980年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附表 1 및 附表 2 참조). 그러나 人口의 都市集中에 따라 學級規模 및 그 變化推移는 지역별로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서울·釜山 등 대도시와 人口流入이 심한 중소도시, 신개발지역 및 공단배후도시지역 학교의 경우 學級規模의 증가가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온 반면 農村人口의 도시이동으로 農村地域學校에서는 그 規模가 점차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學級規模 및 講議規模는 人件費뿐 아니라 後述할 運營費 및 施設費와도 바로 연관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學級規模 및 講議規模가 施設投資 程度에 의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거니와 運營費가 주로 學級單位로 또는 講議單位로 지급됨에 따라 運營費水準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3. 運營費

運營費는 經常的 經費中 人件費를 제외한 모든 經費로, 보는 이에 따라 敎育의 質을 가장 잘 나타내는 指標로 인식되기도 한다. 먼저 不變價格基準 單位運營費의 變化推移를 보면 〈表 17〉에 제시된 바와 같다. 不變價格基準 單位運營費는 國民學校의 경우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증가폭도 상당히 큰 반면 中學校의 경우 1982年 이후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高等學校의 경우 기간별로 기복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高等敎育機關의 單位運營費는 4年制 大學에서 1977~82年을 예외로 계속 증가하였으며 專門大學에서도 1967~82年 기간 동안 계속 증가하다가 1982年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敎育大學의 경우에는 1967~77年 기간

〈表 17〉 單位運營費의 變化指數(1975年 不變價格基準)

		1967~72	1972~77	1977~82	1982~85
國民學校	國公立	2.76	1.40(3.85)	0.96(3.68)	1.51(5.55)
	私立	2.79	2.10(5.85)	1.05(6.15)	1.07(6.59)
中學校	國公立	—	0.89(0.89)	0.83(0.74)	1.23(0.91)
	私立	—	0.71(0.71)	0.92(0.65)	1.10(0.72)
高等學校	國公立	—	1.95(1.95)	0.70(1.37)	1.14(1.55)
	私立	—	1.65(1.65)	0.86(1.42)	0.86(1.22)
專門大學	國公立	1.26	1.48(1.86)	2.15(3.99)	0.81(3.21)
	私立	1.72	1.12(1.93)	0.96(1.85)	0.66(1.22)
敎育大學	國公立	5.22	1.25(6.51)	0.79(5.17)	0.58(2.98)
大學	國公立	1.30	1.40(1.82)	0.88(1.60)	1.03(1.65)
	私立	2.00	1.12(2.24)	0.87(1.95)	1.05(2.06)

註:( ) 안의 數値는 最初年度를 基準으로 한 累積値임.
資料:文敎部,『文敎統計年報』, 各年度.

동안에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다.

教育部門의 새로운 施設의 維持費가 충분히 조달되는가를 평가할 목적과 아울러 運營費의 變化推移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運營費模型을 추정하였다[9]. t 期의 資本的 經費支出, 즉 設費投資는 $t+1$期에 運營費支出을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의 效果로 運營費豫算이 前年度에 비해 物價上昇率만큼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運營費의 증가액은 前年度의 資本的 經費支出額과 인플레이션하에 前年度의 運營費水準을 유지하기 위한 附加的 經費의 函數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를 式으로 표시하면

$$\Delta R_t = \alpha + \beta K_{t-1} + \gamma P R_{t-1} + \varepsilon$$

R_t = t期의 運營費

ΔR_t = 前年度에 比한 t 期의 運營費增加額

P = 物加上昇率(運營費價格指數上昇率)

K_t = t 期의 資本的 經費

가 된다. 各級學校別 時系列 回歸分析의 결과 自由度가 낮아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同質性檢定(homogeneity test)후에 國·公立과 私立으로 「풀」(pool)하였다. 1967~85年의 資料를 單純最小自乘法(OLS)에 의하여 추정한 결과는 〈表 18〉과 같다[10].

私立學校의 運營費 決定은 模型의 예상대로 나타났다. 우선 物價上昇에 따른 運營費豫算增加는 충분하였다. 또한 새로운 資本設費의 약 14% 정도가 다음해의 運營費에 計上되는 것으로 보인다. 教育部門 施設프로젝트의 回姙期間이 다양할 것이므로 維持費調達水準을 반영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반면에 國·公立學校의 運營費 變化는 物價上昇도 새로운 施設의 維持所要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國·公立學校 財政運營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國·公立學校의 경우 私學에 비해 經常的 經費中 運營費의 比重이 낮고 單位運營費도 작다는 前節의 論議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4. 學校施設 與件

各級學校 施設與件의 變化를 主要 量的 指標를 통해서 살펴보면 전술한 學級當 學生數의

〈表 18〉 運營費의 決定要因(1968~85년)

	α	β	γ	R^2	F
國·公立	2.84 (1.25)	0.333 (1.19)	0.537 (1.58)	0.09	2.49
私 立	0.20 (0.11)	0.143 (3.73)	1.553 (5.57)	0.58	33.12

註 : 縱屬變數=ΔR_t. 觀測値數=51, ( ) 안은 統計量.
資料 : 文教部, 『文教統計年報』, 各年度.
韓國銀行, 『國民所得計定』, 各年度.

9) 이는 Heller(1974)가 개발한 模型과 거의 유사함. Heller and Cheasty(1984) 참조.
10) 同質性檢定을 위한 F統計量은 國·公立 0.127, 私立 0.378로서 pooling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음. 誤差分散의 비정규성을 상정한 「더미」變數 最小自乘法(LSDV)에 의한 추정결과도 이와 비슷함.

變化推移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967~85年 기간 동안 國民學校의 경우 그 施設與件이 점차 개선되어 왔으나 中學校 이상의 各級學校에서는 그 施設與件이 계속 악화되어 왔으며 특히 大學에 있어 그러한 추세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에서 살펴 본 GNP對比 總資本的 經費의 比率變化를 통해서 이미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人口對比 學生數比率이 1967~82年 전기간에 걸쳐 上級學校를 中心으로 급격히 증가한 데 비하여 GNP對比 總資本的 經費의 比率은 第2次 5個年計劃期間보다 第3, 4次 5個年計劃期間中에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敎育稅 徵收期間인 1982~85年 기간에는 GNP對比 總資本的 經費의 比率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라 各級學校의 施設與件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附表 3 및 表 14 참조).

5. 敎育의 質的 變化에 대한 推論

前述한 바와 같이 1967~85年 기간 동안 國民學校를 제외한 各級學校에서 不變價格基準 單位敎育費가 대체로 감소하였으며 不變價格基準 GNP對比 單位敎育費는 더욱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公敎育費 資料를 보다 상세히 검토하여 보면 敎育投入要素別로 變化推移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單位人件費의 감소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80年代 초반까지 敎員/學生 比率이 크게 떨어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學級規模 및 敎員授業負擔이 증가하였다. 또한 1980年代에 이르기까지 學校建物 및 學校校地 등 學校施設도 계속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敎員給與水準은 1人當 GNP 水準과 대체로 비슷한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實質投入基準 單位運營費도 中學校를 예외로 하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敎育投入要素別로 公敎育費의 變化推移가 달리 나타남에 따라 敎育의 質的 變化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그 각각의 敎育效果에 미친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各 敎育投入要素의 變化가 敎育效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는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합의된 결론을 얻기가 어려운 문제로 本論文에서는 다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學級規模의 경우를 제외할 때 前述한 모든 變化要因이 敎育效果에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하였는지는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學級規模와 敎育效果間의 관계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없지 않다. 즉 學級規模가 클수록 敎員이 學生 個個人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고 따라서 敎育效果가 떨어진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대해서 學級規模는 學業成就度에 그다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와 더 나아가서 大規模 學級이 오히려 學業成就度를 높인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學級規模와 敎育效果間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세계은행의 한 보고서에서 學級規模의 증가 자체가 반드시 學業成就度의 감소를 유발한다고 할 수 없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學級을 운영하는 敎師의 態度 및 行動이라는 결론이 제시된 바 있다[1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미국을 中心으로 주로 先進國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學級當 學生數 50名 이

11) Haddad and Ruiz(1978) 참조.

상의 大規模 學級을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中學校의 平均 學級當 學生數가 60名을 넘고 대도시 지역에서 70名을 초과하는 學級數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는 學級規模의 증가가 教育의 質的 水準의 하락을 의미한다는 데 대해 異論이 있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學級內 學生間 能力隔差가 클수록 學級規模의 適定水準이 작아진다고 할 때 中等教育 平準化政策의 실시 이후 教育效果의 측면에서 學級規模 減少의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V. 結　論

이상에서 지난 20年間의 公教育費 資料 및 關聯指標를 상세히 검토한 결과 國民學校의 경우 教育與件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中學校 이상의 各級學校에서는 學級規模 및 教員授業負擔이 계속해서 증가하였으며 學校施設與件 또한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高等教育뿐만 아니라 거의 完全就學段階에 이른 中學校教育까지도 學生納入金收入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公·私學 教育의 역할이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公·私學 納入金依存度 및 單位教育費의 差異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學齡人口의 급격한 증가와 國民의 높은 教育熱에 따라 中學校 이상의 各級學校 學生數가 빠른 속도로 증가된 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義務教育機關인 國民學校의 경우 學生數의 증가추세가 멈춘 상태에서 財政支援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教育의 質的 改善이 이루어진 반면에 中學校 이상에서는 教育機會의 확대에 급급하여 그 財政의 대부분을 제한된 學生納入金收入과 私學法人負擔에 의존해 옴에 따라 教育의 質的 落後 및 衡平上의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年間의 教育投資政策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教育豫算의 제약하에서 教育의 質 및 衡平의 문제와 教育의 量的 機會의 문제가 서로 相衝關係에 있음을 認識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教育機會 擴大爲主의 政策方向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또한 教育의 量的 膨脹에 따른 單位教育費의 감소가 주로 學校 및 學級의 過密·過大化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검토결과와 관련하여 各 投入要素別 費用效果(cost effectiveness)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러한 費用效果에 대한 분석은 教育投資政策의 評價뿐 아니라 樹立을 위해서도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 參 考 文 獻 ◁

經濟企劃院, 『都市家計年報』, 各年度.

————, 『韓國의 經濟指標』, 1986.

孔銀培·姜泰重·韓裕京, 『教育投資規模와 收益率』, 韓國教育開發院, 1985.

金永哲·孔銀培·李允植, 『教育投資規模와 適正單位教育費』, 韓國教育開發院, 1982.

文教部, 『文教統計年報』, 各年度.

韓國教育開發院, 『韓國의 教育指標』, 1985.

韓國銀行, 『國民所得計定』, 各年度.

Bradford, D.F., R.A. Malt, and W.E. Oates, "The Rising Cost of Local Public Service: Some Evidence and Reflections," *National Tax Journal*, Vol. XXII, No. 2, June 1969.

Eicher, J.C., *Educational Costing and Financing in Developing Countries: Focus on Sub-Saharan Africa*,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s, No. 655, 1984.

Haddad, W.D. and F. Ruiz, *Educational Effects of Class Size*,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s, No. 280, 1978.

Halstead, D.K., *Inflation Measures for Schools and Colleges*, The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September 1983.

Heller, P.S., "Public Investment in LDCs with Recurrent Cost Constraint: The Kenyan Cas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LXXXVIII, May 1974.

Heller, P.S. and A. Cheasty, "Sectoral Adjustment in Government Expenditure in the 1970s: The Educational Sector in Latin America," *World Development*, Vol. 12, 1984.

OECD, *Towards Mass Higher Education*, Paris: OECD, 1974.

Ohagan, J. and M. Kelly, "Components of Growth in Current Public Expenditure on Education and Health," *The Economic and Social Review*, Vol. 15, No. 2, January 1984.

〈附表 1〉 敎員 週平均 授業時間

		1967	1970	1975	1980	1985
中學校	公立					
	主任敎師	—	—	20.67	24.20	21.71
	敎師	22.54	22.26	23.74	25.08	23.15
	私立					
	主任敎師	—	—	18.91	22.02	20.87
	敎師	22.02	21.60	23.34	24.89	23.51
高等學校	公立					
	主任敎師	—	—	19.53	21.83	18.75
	敎師	20.88	21.22	22.46	22.96	19.86
	私立					
	主任敎師	—	—	17.11	19.98	18.59
	敎師	20.95	20.80	21.90	23.36	21.54

資料：文敎部, 『文敎統計年報』, 各年度.

〈附表 2〉 學校級別 學級當 學生數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1965	65.4	60.7	57.1
1970	62.1	62.1	58.2
1975	56.7	64.5	58.6
1980	51.5	65.5	59.8
1985	44.7	61.7	56.9

資料：韓國敎育開發院, 『韓國의 敎育指標』, 1985.

〈附表 3〉 各級學校 施設與件

(단위 : m², 名)

	學生 1人當 學校 建物面積				學生 1人當 基本 學校校地 面積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校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校
1965	1.3	2.3	4.1	19.1	15.7	24.2	—	208.2
1970	1.5	2.2	4.0	15.6	12.8	22.3	33.5	238.9
1975	2.0	2.1	3.5	10.4	14.8	16.3	28.8	111.4
1980	2.1	2.0	2.6	11.6	15.7	16.1	26.0	101.6
1985	2.9	2.6	4.0	9.7	19.4	15.1	25.8	60.2

	學生 1人當 體育場 面積				化粧室 1棟當 學生數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校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	大學校
1965	8.9	13.6	—	24.4	407.0	136.3	—	—
1970	8.9	14.5	18.2	18.9	429.1	140.5	388.9	174.9
1975	9.4	10.5	16.8	9.1	455.1	153.3	420.3	162.8
1980	10.0	10.1	12.1	6.0	475.8	149.9	440.4	498.6
1985	12.4	9.7	12.5	3.5	300.8	216.0	321.0	244.4

資料：韓國敎育開發院, 『韓國의 敎育指標』, 1985.